

금요 수필

어느 식탁 위의 지옥

인류가 언제부터 고기를 탐했는지는 아득히 먼 신화의 영역에 속한다. 수백만 년 전, 혹은 수십만 년 전쯤일 것이다. 불을 다스리는 지혜를 터득하기 훨씬 전부터, 인간의 손에는 아니 다른 생명의 숨통을 끊어놓은 서늘한 손가락이 배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육식은 단순한 허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한 생명이 품은 우주를 건너뛰는 결단이다. 고르게 숨 쉬던 존재의 내장을 가르고, 단단한 뼈대를 해체하며, 온기가 채 가지지 않은 시체에 '식재'라는 무심한 이름을 붙이는 일이다. 인간이 단물의 영장으로 서는 누리는 특권이다. 자위하기엔 살아 있는 존재를 강제로 죽여 그 시신을 살간다는 사실이 때로는 소름 끼치도록 서늘하다. 이 섬뜩한 유구한 관습과 식문화는 거대한 불 속에서 꾸미셨을 뻔, 우리 본성 한구석에 더없이 형성하게 살아 있다.



신 영 규
전북 수필과 비평 작가회의 회장

학적인 관점에서 내려놓고 '생명력' 그 자체로 바라본다면, 외부 자극에 비경 지르고 고통 앞에 문부림치는 저 생명력이야말로 가장 뜨거운 혼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닐까. 그들은 죽음의 그늘 앞에서 공포를 작시하며, 단 1초의 숨을 더 붙이기 위해 진력을 다해 저항한다. 인간의 불멸성에 비견할 수는 없을지라도, 생명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들은 그들의 빛은 눈동자 속에 분명히 일렁이고 있다.

이런 실존적 고뇌는 뜻밖에도 식탁이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에서, 가장 잔혹한 형태로 나를 숙격이 되고 떠난 '혼'의 행장을 물곤 한다. 피눈물에도 영혼이 있는가. 이 해묵은 질문은 그림자처럼 집요하게 나를 따라다닌다. 신학적 잣대는 냉정하다. 기독교에서는 동물의 영(靈)이란 육신의 소명과 껍데를 같이 한다고 선을 긋고,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국한한다. 그 열거한 문법 안에서 불교기는 고통을 모르는 무생물에 가까운 존재처럼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초부터 단물에 신성한 기운이 깃들여 있다는 정령(精靈)의 속삭임은 끊이지 않았다. 인간이 영과 혼을 겸비한 존재라면, 동쪽은 적어도 생의 의지인 '혼'을 온전히 품은 존재다. 영혼의 정의를 형이상

통은 불길 속에서 발출구를 찾은 죄수의 들짓을 닮아있다. 끓는 육수 속에서 나치의 저항은 서서히 찾아 들지만, 생이 불꽃을 놓지 않으려는 증거는 존재가 아닐까. 그들은 죽음을 그늘 앞에서 공포를 작시하며, 단 1초의 숨을 더 붙이기 위해 진력을 다해 저항한다. 인간의 불멸성에 비견할 수는 없을지라도, 생명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들은 그들의 빛은 눈동자 속에 분명히 일렁이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작은 생명이 '끓는 세계'라는 거대한 폭력에 맞서 벌이는 고독한 사투다. 내비는 폐쇄된 감옥이며, 나치는 그 안에서 생명을 굶구는 무력한 수감자다. 그 광경을 목격하며 젓가락을 드는 일은 가혹한 고역이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이는 결코 감상적인 과정이 아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느끼는 지극히 본능적이고도 처연한 공감의 분노다.

얼마 전, 문화회 동료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도 이 잔혹한 의식은 반복되었다. 육수가 끓어오르자 종업원은 기계적인 순결한 산 나치를 발이 났었다. 나치가 마지막 생명을 쥐어짜며 비틀거릴 때, 나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내뿜었다.

"살아 있는 몸을 이토록 뜨거운 불에 넣는 것이, 인간을 불 속에 밀어 넣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대체 얼마나 큰 '업(業)'을 쌓으려고 이런 악을 예사로 이기는 것입니까."

나의 질박한 외침에 돌아온 것은 종업원의 쿠산한 미소와 동료들의

가벼운 웃음소리뿐이었다.

과연 인간은 얼마나 많은 임보를 향으며 살아가는가. 생명을 산 채로 끊어내는 행위는 명백한 비인도적 야만이다. 이미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낙지나 게, 미더가지를 고통을 느끼는 지각 있는 존재로 규정하여 산 채로 조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한국의 식탁 위에서 나치는 여전히 '기력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식감의 재질이 된다. 우리의 미각적 쾌락은 건국 다자의 극심한 고통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공든 탑일 뿐이다. 비단 낙지뿐이다. 소와 돼지, 닭 또한 도살의 칼날 앞에서 제 죽음을 예감한다. 그들 역시 죽음의 냄새를 맡으며, 살고 싶다는 간절한 분노로 필버둥 친다. 우리가 지연 다 퓨데타리 속 사자가 뿔소의 슬픔을 굶고 내장을 파헤치는 광경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약육강식이라는 잔인한 생태계의 논리가 근영을 유지하는 선리라 할지라도, 인간의 심정으로는 차가 고개를 돌리게 되는 함유함이 그곳에 있다.

점들은 으저 인간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태어난 소모품인가. 끓는 냄기 앞에 설 때마다, 김 서린 창근 너머로 생명의 아우성이 들리는 것만 같다. 그 집요하고도 서늘한 절근은 오늘날 식탁 위에서 뜨거운 감이 되어 피어오르고 내 눈을 적신다.

"신영규 수필가는 1969년 월간 '문예사조'와 1997년 월간 '수필과비평'으로 등단하여 시·수필·칼럼을 쓰고 있다. 현재 전북수필과비평 작가회의 회장과 수수필등인 회장을 맡고 있다.

독자제언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가고, 골목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그러나 등하굣길 교통사고, 아동 대상 범죄, 실종 위험 등 아이들을 둘러싼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지역 내 학교 주변과 공원, 통학로 등 아동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 순찰과 안전 지도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책임감과

아이들을 지키는 또하나의 눈 '아동안전지킴이'

경험을 갖춘 분들이 참여해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살피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의 가장 큰 역할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입니다. 학교 주변에서徘徊하는 수상한 사람, 위험한 교통 상황, 시설물 파손 등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고 살핍니다.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순찰을 넘어 아이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곁에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학부모도 역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더해질 때 비로소 효과가 커집니다. 아이들이 낯선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교에서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중 발견된 위험 요소는 경찰과 즉시 공유되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안전 관리가 보다 촘촘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동 대상 범죄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기에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역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한지수군산경찰서 오피자구대경사

사설

미국 피해자 집단 소송에 직면한 쿠광

미 의회까지 흔들고 있는 쿠광이 피해자들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한국이 아닌, 쿠광 모기업이 있는 '미국'에서다. 미국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것, 사고 경위와 대응 과정을 보다 촘촘히 들여다보려는 원고 측의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피고 명단엔 쿠광 본사와 함께 김범식 의장의 이름도 올랐다. 쿠광의 모기업, 쿠광H가 있는 미국에서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연락처와 주소, 개인통관 고유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돼 신원 도용 등의 실질적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측은 미국인과 한국인 약 7천 명이 연락을 해왔으며 쿠광이 미국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된 만큼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안 예산과 정책, 사고 대응 프로토콜 등 핵심 의사결정이 미국 기반의 경영진에 의해 통제됐으므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하다. 쿠광 본사와 함께 창업자 김범식 의장도 피고로 명시됐다. 최고 결정권자로서 보안 위협을 방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묵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위에서부터 의사 결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비용 절감을 위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미국 소송에선 증거를 열람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쿠광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이와는 별도로 쿠광 주주들은 투자 손실을 이유로 쿠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국의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쿠광을 둘러싼 소송전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취재 정보로 부당이득

국내 어느 경제신문 기자들이 선 행매매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후배 기자들이 취재해 온 정보를 투자 정보로 악용한 간부급 기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지와 근절 활동 대응단의 압수수색을 받은 기자는 모두 5명, 이 중에는 간부급인 이른바 '데스크' 기자도 포함돼 있다. 데스크는 취재 기자들이 보고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기사 승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취재 정보가 흘러드는 곳이기도 하다. 일부 데스크급 기자들이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공시되지 않은 상장사의 각종 호재성 정보를 읽고 기사 출고 여부까지 확인한 뒤 관련 주식을 대량 매입하고 기사 출고 후엔 되파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긴 이익만 한 명당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를 띄우기 위해 호재성 기사를 쓰는 행위뿐 아니라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경로에 있는 기자들이 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경우까지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열정 대응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해당 언론사는 "혐의를 받는 구성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내부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기사 선행매매 사건 연루 언론사 중 공식적으로 사과한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사에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챙기는 일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폐기망신하는 일을 철저히 막기 바란다.

사내·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도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